

“이중섭거리 확대 문화·경제 파급 효과 기대”

‘지정 확대·작가의 산책길 연계 활성화’ 영역 제시 “기존 구역 이중섭 삶·예술자원 충분히 못 담아” 최적 후보 이중섭미술관~서귀진지~자구리해안

솔동산문화거리포함해 서귀포시 핵심 문화·관광 축인 이중섭 거리를 확대한다면 문화·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이중섭거리, 작가의 산책길, 솔동산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 조례 또는 관리 지침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서귀포시가 제주연구원에 맡긴 ‘이중섭거리 지정 확대 및 작가의 산책길 연계 활성화’ 영역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연구진은 이중섭거리 확대 시 필요성, 타당성, 법적 근거 등을 검토했고, 인접 주민·도민·방문객 설문 조사, 전문가 조점 집단 면접(FGI) 등을 통해 활성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9일 영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중섭거리 기존 지정 구역이

협소해 이중섭의 삶·예술 자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유동 인구, 상권 밀집도가 높고 이중섭미술관 확충, 차 없는 거리 조성,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등 다수의 국·지방비 사업이 동시 추진돼 공간 확장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중섭거리 확대 시 최적의 후보지로는 서귀포의 정체성을 가장 입체적이고 서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중섭미술관~솔동산문화거리~서귀진지~자구리해안 동선을 꼽았다. 이 구간은 예술(이중섭)·문화 거리, 조선 시대 군사 유적(서귀진지), 해안으로 이어지는 ‘역사 층위의 확장’이 강점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적·역사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서귀포시 핵심 문화·관광 축으로 꼽히는 이중섭거리.

한라일보 DB

문화 거리, 역사 유적, 해안이라는 세 가지 경관 축이 조화롭고 체험의 깊이가 있어 지속 가능 관광에 유리하다고 했다. 다만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서귀진지 주변의 역사 보존 규제, 주민 의견 조율은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연구진은 정책적 시사점 등을 통해 “이중섭거리 확대는 도시계획·문화 예술·관광을 포괄하는 부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중섭미술관 확충과 연계한 중장기 문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 기념거리에서 벗어나 체험형·스토리텔링형 관광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며 “거리 활성화는 상권·주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계되므로 주민협의체 기반의 공동 운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진선희기자 sunny@halla.com

대보름에서 동지까지 세시풍속 체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서 이달부터 매달 한 차례 운영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립박물관 중 하나인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시풍속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기존 ‘문화가 있는 날’인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맞춰 제주 세시 풍속 등을 주제로 총 9회에 걸쳐 ‘우리 가족 모다 들인 박물관 나들이’를 펼친다.

세시 풍속은 예로부터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잊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에 박물관에서는 정월 대보름, 영등할망 맞이, 삼짇날, 단오, 유두절, 마블림제, 감물 염색, 낙인과 귀포코사(마소의 귀에 표식을 하는 날 올리는 제사), 동지를 테마로 정해 만들기 체험 등을 그 의미를 짚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올해 첫 일정한 이달 25일에는 정월 대보름 숯대 만들기를 준비했다. 이때는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숯대를 제작하고 소원을



‘세시풍속 체험의 날’ 포스터.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공

적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4월=조개껍데기 자개모빌(또는 영등할망 만들기) >5월=제주 봄꽃 도장찍기(또는 클레이로 화전 만들기) >6월=쭈주머니 만들기 >7월=건단모양 비누 만들기, 낙동배기 만들기 >8월=스칸디아모스 습기 제거제 만들기 >9월=감물 손수건 염색 체험 >10월=내 이름 디퓨저 만들기 >11월=팔주머니 만들기가 이어진다. 각 프로그램은 체험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박물관 광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비가 오면 바다전시관 앞마당이나 사회교육실로 옮겨 진행한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쏠리

우당도서관 상주 작가 모집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상주 작가를 모집한다.

모집 예정 인원은 일반 작가 1명과 39세 이하(1986년 5월 2일 이후 출생자) 청년 작가 1명 등 2명이다. 선정 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도서관에 상주하며 집필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성인 대상 동화 창작·글쓰기 수업, 어린이 대상 스토리텔링·그림책 발간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문학상주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올해 제주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시설은 우당도서관 외에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제주문학관이 선정됐다.

혼디 모영 작은도서관 행사

제주도 한라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마을을 잇다-제주를 열다’를 주제로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제3회 혼디모작(혼디 모영 작은도서관) 행사를 연다.

이날 한라도서관과 도내 작은도서관이 협력해 심포지엄, 독서문화 체험, 부대 행사, 어린이장터, ‘빛나는 100책’ 원탁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이 중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제주의 시 필사 노트 만들기 >제주를 읽고, 빛나는 제주바다 만들기 >내가 만든 꽃자왈의 봄 >한 땀 한 땀 제주스런 돌담 쌓기 >4·3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부스가 운영된다. 도서관 야외 마당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장터, 가상현실(VR) 체험 존, 인생책트 코너가 펼쳐진다.

도서관 동아리 지원 사업 선정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중앙도서관,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예술 동아리를 운영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중앙도서관은 ‘이반스케치’, ‘책벨트’ 활동을 이어간다. 동부도서관의 신규 동아리 ‘석고메이커스’, 서부도서관의 시니어 대상 미술 동아리 ‘느린 붓끝’, 안덕산방도서관의 ‘니트리브’ 등도 지원을 받게 됐다.

회원 모집은 이르면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호마을 사진 기록단’ 운영

서귀포시 동부도서관은 2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가진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신호마을 사진 기록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개발로 빠르게 변화하는 마을의 현재를 주민들의 눈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기 기획했다. 오는 21일에는 ‘구한질과 옛 마을 골목길’을 주제로 제주어 명칭이 살아 있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본다. 28일에는 ‘신호마을의 비경과 숲’을 주제로 자연 경관 위주로 탐방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록하게 된다.

탐방을 통해 수집된 사진 기록들은 동부도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는 소암기념관 전시실.

서귀포시 제공

종이에 먹글씨... 사유의 시간을 빛다

소암기념관 소장품 전시 서예·회화 5월 17일까지

서귀포 출신 서예가 소암 현중화(1907-1997) 선생의 예술혼이 깃든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이 종이 위에 먹으로 쓴 글씨 등을 마주하며 잠시 지친 일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관람객을 초대했다. ‘사유(사유의 시간)’이란 이름이 달린 소장품전을 통해서다.

이 전시에는 소암기념관에서 소장한 회화, 서예 작품 등 30여 점이 나왔다. 소암 특유의 자유분방한 필치가 드러나는 ‘風過耳(풍과이)와 ‘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 이인호의 그림과 소암의 글씨가 어우러진 ‘眞玉泥中(진옥니중)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실을 거닐다 보면 마음을 새로이 다지며(一轉) 가까운 곳의 행복(福在邇)을 발견하길 기대한다는 문장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전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입장료 무료. 월요일은 휴관한다. 진선희기자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뽕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북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